

방송제 기획 줄거리:

[제목 :]

기획 - 권우현

촬영 및 편집 -

출연1 - 문태훈 (김현섭)

출연2 - 임수영 (지연진)

출연3 - 정민구 (정서준)

출연4 - 양정인 (강여진)

출연5 - 최옥만 (주승현)

출연6 - 유복희 (신유진)

S#1 (방송국 내부)

(페이드 인)

(옥만이 이상하다 하는 것부터 이어서 시작합니다.)

옥만: 이상하군.

수영: 뭐가?

옥만: 사물함에 종이가 어떻게 있는거지?

수영: 그거야, 미션... 어?

태훈: 뭐가, 우리가 미션을 해야되니까 있는게 당연하잖아.

수영: 아니야, 있으면 안되잖아.

태훈: 그러니까, 왜?

수영: 분명 아까 우리는 사물함에서 호감도 투표랑 마피아가 쓴 종이를 확인 했어. 근데, 사물함에 갑자기 종이가 생긴다고?

태훈: (이해를 못하는 표정을 짓다가 이해를하고) ... 혁, 진짜네?

옥만: 역시 이상한 곳이군.

민구: 최..최첨단 기술 아닐까?

수영: 그런 기술이 있어?

민구: 어? 아니.. 잘은 모르지만..

태훈: 뭐 근데 어쨌든 미션은 해야하는 거잖아. 민구 말대로 이게 최신 기술 일수도 있고.

수영: 그런가..

복희: 나도 그냥 여기 기술이 좋은거라고 생각해. 뭐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두가 사물함에 들어있는 미션지를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이내 별거 아니라 는 듯 넘어간다. 그리고 나오는 방송)

방송: (NR) 오늘은 단체로 야외에서 활동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야외에서 자유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수영: 와, 드디어 나간다 나도.

(야외 활동 하는 장면 추후 추가 예정, 사람들이 밖에서 돌아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마피아로 확정된 사람이 발표됩니다.)

방송: (NR) 오늘의 마피아가 결정되었습니다. 마피아는 “남자”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피아가 나오지 않은 여자쪽에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션은 동일합니다. 9시까지 먼저 성공한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9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음)

수영: 엉, 야외에서만 있었는데 어떻게 한거야.

태훈: 다~ 할려면 할 수 있는거지.

수영: 그럼 넌가 보네.

태훈: (약올리듯) 글~쎄?

수영: 예~.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시간이 약간 흘러 모두가 지쳤는지 앉아서 쉬고 있다. 그때, 수영이 조심스럽게 옥만에게 자신의 미션을 하려 간다. 미션은 옥만의 어깨 주물려주기. 그런 수영을 보고 아니나 다를까 꼬투리를 잡는 태훈)

수영: (옥만에게 다가가) 옥만, 오늘 노느라 힘들었겠다.

옥만: 괜찮다.

수영: (옥만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니야, 있어봐.

태훈: 너 이거 미션이지?

수영: 뭐래, 너도 이따 해줄거니까 기다려.

태훈: 그래? 하하, 그럼 부탁할게.

옥만: 미션이군. 지목하겠다. 임수영

수영: 예? 예??

(옥만이 수영을 지목하고 방송이 나온다.)

방송: (NR) “임수영”님의 미션이 발각되었습니다. “임수영”님은 오늘 의사가 되실 수 없습니다.

수영: 아, 아.. 옥만. 진짜 너무하다 나는 너 살릴려고 했는데.

옥만: 아닌거 안다.

태훈: ㅋㅋㅋㅋ, 꼴 좋다 임수영

수영: (태훈을 째려본다)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그렇게 시간이 흘러 투표시작 전 방송이 나온다.)

방송: (NR) 호감도 투표시작전, 모두 중앙테이블에 놓여있는 태블릿을 확인해 주십시오. 태블릿에 탈락된 양정인씨의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수영: (살짝 놀라며) 앵? 진짜?

(모두가 중앙테이블로 모인다. 그리고 태블릿을 켜 바탕화면에 있는 동영상을 확인한다. 동영상이 시작되고, 검은 화면이 지속된다. 그러다 갑자기 들리는 정인의 비명소리, 모두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화면이 밝아지며 화면 안에 정인이 쓰러져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평소 사람들이 호감도를 투표하던 장소. 그렇게 영상이 종료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병진다.)

수영: 뭐야..?

태훈: 몰카 같은건가?

욱만: 우리가 투표를 하던 방이군.

수영: 그럼 저 안에 지금 정인이가 있는거야?

욱만: 가봐야겠군.

태훈: 자, 잠깐 안에 진짜 죽어있으면 어떡해?

수영: 야, 죽긴 뭘 죽어. 누가 봐도 그냥 연출이지.

(욱만이 앞장을 서고, 나머지 사람들이 뒤따라 투표를 하던 장소로 향한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방송국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난다.)

수영: 그럼 그렇지. 연출을 재밌게 하네.

태훈: 와, 나 진짜인 줄 알았네

복희: 나도, 엄청 놀랐어

민구: (한숨을 내쉰다)

(밖에서 문소리가 닫히는 소리가 크게 난다. 여기에 깜짝 놀라는 참가자들)

수영: 깜짝이야!

민구: 뭐.. 뭐야

(다시 밖으로 하나 둘 나가는 참가자들. 테이블 위에는 정인이 올라가 있다. 단체로 당황하는 참가자들 옥만만이 침착하게 테이블로 다가가 정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수영: 저거 정인이야?

태훈: 어어어어, 맞네. 야 정인아 거기서 뭐하냐. 쓰러진 척 하는거야?

민구: 죽..죽은거 같은데

수영: 민구야, 이상한 소리 좀 하지마.

옥만: (조용히 정인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정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미 죽었군.

수영: 야, 옥만 너까지 그러기야? 다들 그게 재밌느냐

(수영이 답답해 자기가 직접 정인에게 다가가 확인한다. 그러나 이내 정인이 죽었음을 인지한다.)

수영: (정인에게 다가가) 정인아, 재미없어 이제 일어나. 어떻게 된.. (정인이 죽었음을 인지하고) 정인아..? 진짜 죽은거야? (힘이 풀려 뒤로 넘어가는 수영)

태훈: 진짜라고?

(사람들은 단체로 패닉에 빠진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민구)

민구: (소리를 지르며) 나..나도 죽을거야!!!!

복희: 진짜.. 죽은거라고?

태훈: X발.. 이게 다 뭐야. 사람이 왜 죽어... 왜 죽냐고..

욱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일단 이곳을 나가는게 좋겠군.

(욱만이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욱만: (문을 열려고 하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 ... 문이 열리지 않는군.

태훈: 이 상황에 장난치지마.. 빨리 문 열어. 아니 내가 연다.

(태훈이 직접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지만, 역시 열리지 않는다.)

태훈: (문을 다급하게 열려고 하며) 아니, 뭐야.. 왜 안 열려 이거. 뭐냐고

민구: (태훈에게 크게 소리치며) 내가.. 내가.. 안 열린다고 했잖아! 그때 내 말을 믿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태훈: (소리치는 민구에게 당황하며) 뭐, 뭐 언제?

(과거 회상. 2화 S#1에서 민구가 문을 열 때, 잠깐 안 열리던 장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태훈: 아, 뭐..뭐 그때? 그때 그건 장난인 줄 알았지

민구: (소리치며) 다 죽을거야.. 다 죽을거라고!!

(이 상황을 오묘하게 바라보는 복희. 뭔가 웃는 듯 하지만 이내 표정을 식히고 울적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나오는 방송)

방송: (NR) 이제 호감도 투표와 마피아의 지목이 있겠습니다. 모두 투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훈: 이 상황에.. 투표를 하겠냐? 하겠냐고 이 미친 XX들아.

방송: (NR) 만약, 오늘의 투표가 진행되지 않을 시, 전원 “탈락”입니다. 자정이 되기 전에 모든 투표를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종료음)

민구: (중얼거리며) 죽을거야.. 다 죽을거라고...

(방송이 끝나고, 한동안 멘탈이 나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정인의 시체는 쇼파 위에 올려져 있고, 그 위에 담요가 올려져 있다.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수영과 복희.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 시간의 흐름을 표시해 주세요. 시간이 흘러 오후 11시 30분이 되었다. 먼저 나서는 육만.)

육만: 일단 투표는 해야하는 것 같군.

태훈: (육만에게 화를내며) 미쳤어? 투표를 하면 누구를 죽이는 건데, 투표를 하겠다고?

육만: 어차피 투표를 하지 않아도, 모두 죽는다.

수영: (쇼파에 앉아 이마를 짚으며) 육만 말이 맞긴해.. 어차피 투표 안 하면 모두 끝장이야.

태훈: 닥쳐! 야, 임수영 오늘은 남자가 마피아를 지목하는 날이라고, 너가 안 걸린다고 말 쉽게 하지마라.

수영: 그럼 뭐, 어쩔건데? 그리고 어차피 마피아가 사람을 지목하지 않을 수도 있는건데, 여기서 일부러 이름 적기라도 하겠어?

(수영이 말이 일리있다. 하지만 태훈은 자신의 지난 행적을 돌아보니, 영 캐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태훈: X발... 그건 맞긴 한데... 그래도..

복희: (소심하게) 나도 어쨌든 투표는 해야할 것 같아..

수영: 그래, 마피아인 사람은 그냥 종이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내는 걸로 하자.

태훈: (불안한 듯 손톱을 깨물며) 그냥, 마피아 누구인지 공개하면 안 되나? 옥만 너야? 아니면 민구?

수영: 그건 안돼.

태훈: 왜?

옥만: 둘 때문이다. 마피아는 스스로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

태훈: 둘.. 둘!! 그놈의 둘!! 하.. X발 이곳에 오는게 아니였어.

(태훈의 걱정 뒤로 사람들은 투표를하러 들어간다. 사람들은 종이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투표함에 종이를 넣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민구가 마피아 용지를 빤히 보고 있는 장면을 넣어주세요. 한참을 고민하다, 무언가를 적어 투표함에 넣는 민구. 페이드 아웃)

S#2 방송국 내부(자정)

(페이드 인)

(모두가 투표를 끝내고 지쳐서 앓아 있다.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되는지 재차 묻는 태훈.)

태훈: (걱정되는 듯) 마피아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적어서 낸 거 맞지?
만약에 적었으면 그거 살인이다. 살인자 되는거야.

옥만: 걱정하지 마라, 태훈.

태훈: (민구를 바라보며) 민구, 하.. 그래 너는 적을리 없겠지..

민구: (태훈을 살짝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수영이 투표를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 의문은 투표함 앞에 놓여있는 자신들의 종이. 자신의 투표 차례에 들어가면, 종이가 세팅이 되어있었기 때문.)

수영: 근데, 내가 투표하러 들어갔을 때, 종이가 이미 세팅되어 있던데 그거 앞 사람이 해놓고 나가는거야? 누가 젤 먼저 들어갔지?

복희: 내가 먼저 들어갔어.

수영: 복희? 그러면 먼저 들어갔을 때 종이가 있었어?

복희: 어.. 종이가 세팅이 되어 있었어.

수영: ... 말도 안 돼.

욱만: 너도 눈치 챘나, 수영.

수영: 여긴 진짜 미쳤어, 뭐 귀신이라도 씹인거야?

태훈: 그러니까, 지금 너네 말은 종이가 스스로 세팅이 되었다는 거야?

민구: 다.. 죽을거야..

수영: (민구를 살짝 보고나서) 하.. 그런거거나, 저 안에 누가 있다는 거겠지. 아니면 정말 귀신이라도 있거나.

욱만: 우리를 제대로 가지고 노는군.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 의문과 경멸을 하던 중 방송이 나온다.)

방송: (방송시작음 후, NR) 오늘의 투표가 무사히 종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숙소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생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종료음)

복희: 여기서..?

(방송이 끝나고, 수영이 자포자기하여 드러눕는다. 복희도 우울한 듯 의자에 쭈구려 앉아 자려한다. 민구 역시 구석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다. 그를 본 태훈이 답답하다는 듯 한소리를 한다. 하지만, 태훈의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태훈: 다들 그냥 이대로 잔다고? 뭐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야?

욱만: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태훈. 너도 휴식을 조금 취해라.

태훈: 아니 그래도.. 하..

(이내 태훈도 포기하고,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려한다.)

태훈: 그래, 잠이나 자자. 나 지목했지만 해라... 하..

(모두가 반 포기 상태로 잠이 들고, 옥만이 방송국 내부의 불을 끈다. 그대로 페이드 아웃)

S#3 방송국 내부(아침)

(페이드 인)

(아침이 오고,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 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밝다. 다들 부스스하게 눈을 뜬다. 비몽사몽한 가운데, 방송이 나온다.)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 호감도 투표와 마피아의 지목이 완료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물함을 열어 호감을 표시한 종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피아의 지목도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 종료음)

(방송이 나왔지만, 어제 종이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참가자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물함을 열어보지만, 사물함은 비어있다. 태훈을 제외하고는)

수영: (사물함을 열고나서) 오늘은 아무것도 없네. 그래 있는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복희: 나도 없어.

민구: 나도.

욱만: (사물함을 열어 확인한다)

(그때, 태훈이 자신의 사물함을 열고 하나의 종이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태훈: (종이를 들며)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수영: (태훈과 태훈이 든 종이를 바라보며) 뭐야? 그거 설마 종이야?

복희: 말도 안돼.. 종이가 어떻게..

태훈: (종이를 펼치며) X발.. 이거 마피아 용지잖아. 진짜 미친거야? 어떤 X끼야. 육만, 너냐? 그래 너는 나한테 그러고도 남을 놈이지.

육만: 진정해라 태훈.

태훈: 진정? 진정은 개뿔. 너 같으면 진정이 되겠냐?

(태훈이 화를 내던 도중 방송이 나온다.)

방송: (NR) 지난 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밤의 희생자는 “문태훈”씨입니다. “문태훈”씨는 탈락입니다. 잠시 후 문태훈씨의 탈락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마피아가 누구일지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훈: (매우 흥분하여) 야 이 미친 X끼들아!!!!!!!!!!

수영: (육만을 바라보며) 육만, 진짜 너야?

복희: (육만을 바라본다)

육만: (수영과 복희의 시선을 번갈아 보며) 난 아니다.

태훈: (육만의 먹살을 잡으며) 지랄하지 마. 너가 아니면 나한테 이럴 사람이 누군데?

(태훈이 육만에게 화를 낸다. 그러다 슬쩍 민구를 바라본다. 그러나 민구를 의심하지 않는 태훈.)

태훈: (민구를 바라보고 나서) 그럼 민구가 그랬다고? 아니, 내 생각엔 너야 최육만. 사람 좋은 척은 다 하더니만, 속내는 검은 구렁이 새끼였네.

육만: (태훈의 손을 뿌리치며) 이거 놔라. 나는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목할 이

유가 없다. 정 그러면 투표해라. 그러면 알겠지.

(모두가 옥만을 투표하는 것에 동의한다.)

수영: 그러면 옥만이로 하자 아니면 어차피 남은 사람은 정해지니까..

복희: 나도 찬성이야.

민구: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태훈: X발, 최옥만 이 개X끼를 마피아로 지목한다.

(옥만을 마피아로 지목하고, 방송을 기다리는 참가자들. 잠시 후, 방송이 나온다. 하지만 옥만이 마피아가 아니라는 방송. 참가자들을 잠시 충격에 빠지고 이내 민구를 바라본다.)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 여러분께서 지목하신 “최옥만”씨는, (잠시 뜰을 들이며)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남으신 분들은 사물함을 열어 오늘의 미션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훈: 내가 그럴 줄.. 최옥만이 아니라고?

수영: (민구를 바라보며) 민구야.. 어떻게 너가..

옥만: 충격적이군.

복희: 민구야...

태훈: (배신감을 느끼며) 정민구 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에게 민구는 갑자기 급발진을 한다. 여기에 온 동안 자신을 은근히 무시했던 태훈에게 역으로 감정을 쏟아 붐는 민구.)

민구: (감정이 격해져) X..X발.. 여기 오고나서 니들이 나 X나 무시했잖아. 텐 만나면 꿱주고, 못한다고 X랄하고, 특히 문태훈 X도 없으면서 가오만 잡고, 이제 기분이 어때? 니가 무시하던 사람한테 죽게 되는 기분이? (갑자기 웃기 시작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꼴 좋아. 꼴 좋아. 죽어! 죽으라고!!!

수영: (민구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져) 민구야.. 너 원래 그런 애였니..

민구: 나? 내가 뭘데? 내가 니들 따끼리야? 나도 질렸어. 착한 척하는 건. 이게 원래 나야. 나를 병X 취급한건 니들이잖아.

태훈: 그때 내가 들은게 잘못 들은게 아니였네 이 미친 X끼. 너 저번에 혼자 중얼거리면서 욕했지?

(3화 S#5 부분에 민구가 작은 목소리로 욕하는 것을 회상씬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아, 그 때.. 나도 들었어..

민구: (태훈을 바라보며) 그래 X발. 나도 욕할 줄 알아. 누군 너처럼 못해서 안 한 줄 알아?

태훈: (이를 악물며) 난 적어도.. 너처럼 사람을 죽이진 않는다.

(이때, 상황을 중재하는 옥만. 일단 태훈이 살 방법을 모색하자고 한다.)

옥만: 그만, 일단 지금은 태훈이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

태훈: (살짝 포기한 듯한 톤으로) X발.. 어떻게 사는데.. 이 짜같은 곳에서..

옥만: 어떻게든 살린다.

수영: 나도, 도와줄게.

복희: 나도.

민구: 저런 X끼를 도와준다고? 여긴 다 미쳤어. 미쳤다고!!

(민구, 태훈을 도와준다는 사람들 말에 흥분하여 태훈에게 달려든다. 그리고 민구를 제지하는 옥만.)

민구: (태훈에게 달려드며) 내가 손으로 직접 죽여줄게. 다시는 날 무시하지

마. 무시하지 말라고!

태훈: (달려드는 민구에게 멱살이 잡히며) 아악! 이거 놔, 이 미친놈아.

욱만: (민구를 태훈에게서 떼어내며) 적당히 해라. 민구.

(그리고 그 때, 방송이 나온다. 방송은 이제 태훈의 탈락을 실행하겠다는 방송. 그리고 수면가스가 나온다. 쓰러지는 참가자들 욱만은 재빨리 소매로 입을 가려 가스를 마시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쓰러지고 만다.)

방송: (NR) 이제 “문태훈”씨의 탈락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면가스가 나오는 소리)

수영: (수면가스를 마시고 쓰러지며) 뭐야.. 갑자기 졸려...

복희: (쓰러지며) 으..으으....

태훈: 뭐..뭐야 이거... 아, 안돼 도와줘..

욱만: (소매로 입을 가리며) 다들 숨을 최대한 참아라!

민구: (그대로 자리에 쓰러진다)

욱만: 젠장, 다 당했군. (최대한 버티는 욱만 그러나 쓰러진다) 나도.. 이제 한 겐가..

(그렇게 모두가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모두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난다. 그리고 사라져있는 태훈과 정인의 시체.)

복희: 태훈이 사라졌어.. 그리고 정인이의 시체도..

욱만: (고개를 떨군다)

민구: (겁에 질려 몸을 벌벌 떠는 민구)

수영: 집에 가고 싶어...

Ep4. END